

# LCD, 2006년부터 공급과잉 전환

디스플레이서치, 2007년 공급과잉 30% 달해 ... 상위기업 편중 심화

2004년부터 LCD 시장이 다시 공급과잉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샘 마츠노 디스플레이서치 부사장은 9월14일 <2005 디스플레이서치 코리아 FPD 콘퍼런스>에서 “LCD 시장은 2006년부터 공급과잉으로 돌아서면서 2007년에는 대략 30% 가량의 공급과잉이 나타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특히, 대형 LCD는 2004년 6.6% 공급과잉에서 2005년 5.2% 공급과잉으로 다소 수급이 개선됐지만 2006년에는 17.6%, 2007년에는 28.2%의 공급과잉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.

LCD 생산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수급균형 국면에 접어든 LCD 시장이 다시 불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마츠노 부사장은 “LCD 시장이 다시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삼성전자, LG필립스LCD 등 상위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은 높아지는 반면 하위권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

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2004년 3/4분기에는 상위 5개 LCD 메이커들의 대형부문(10인치 이상) 시장점유율이 68%였지만 2005년 3/4분기에는 72% 수준으로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한편, 마츠노 부사장은 “LCD와 달리 PDP 시장은 공급기업 수가 제한돼 있어 앞으로도 양호한 수급상황을 보일 것이며, 2006년부터는 더욱 개선될 것”이라고 밝혀 PDP 시장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.

<화학저널 2005/09/16>